

대학생들의 인성개발 프로그램으로서의 애니어그램 활용

박 기 원*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7. 회 피 |
| II. 애니어그램의 제 개념들 | 8.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
| 1. 애니어그램의 의미 | 9. 각 유형별의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의 상태 |
| 2. 애니어그램의 역사 | III. 나 가 며 |
| 3. 세가지 힘의 중심 | 참고 문헌 |
| 4. 날 개 | Abstract |
| 5. 화살방향 | |
| 6. 집 착 | |

I. 들어가며

현재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높아지는데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고등학교까지는 모두 대학입학에 맞추어져 있고, 대학은 취업과 관련되어 지식전달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기업체의 인력채용패턴도 실력과 함께 개개인의 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공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성교육이나 인성개발이란 용어들이 진부하게 느껴지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들이 없다. 이러한 교육환경 가운데 그나마 전국 각 대학들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꾸준하게 이 분야의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어져 왔다. 그

*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가운데 최근 아직까지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애니어그램이란 성격유형의 도구가 소개되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행동패턴, 삶의 양식의 뿌리가 되는 내면의 가치관을 9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삶의 지혜로서, 학생들의 인성개발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산다.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든 진지하지 않든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 마슬로우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했다.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역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에게 처해진 환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적응을 해야하고, 적응을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나의 행동 패턴을 익히게 된다. 애니어그램에서의 9가지 유형은 바로 이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이해한다. 자신이 적응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한 행동, 유형은 진정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로 지켜준 나의 유형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켜줌’이란 울타리로 나를 가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칫 자신의 유형에 갇힌 사람은 마슬로우의 이야기처럼 ‘가진 것이 망치밖에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로 상징할 수 있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유형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하지만, 자신의 유형을 아는 이유는 결국, 힘들게 얻은 자신의 유형을 버리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유형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다. 이 유형은 다른 말로 자신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하는 것, 자신의 열정, 함정, 포로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므로 9가지 유형이 갖는 각 집착들을 이해하고,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나 자신의 본성을 발현하게 된다고 한다. 이 본성은 참나, 불성, 본래면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본성이 ‘참나’라면, 본성을 발현하기 전의 나는 ‘거짓 나’라고 말할 수 있다. 구르지에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기계’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행위들은 모두 기계적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신이 잠들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깨어나게 된다.

이는 마치 휘영청 밝은 보름달에 먹구름이 끼여 그 달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비유하기도 한다. 그 먹구름만 제거하면 달빛은 저절로 환한 빛으로 만물을 비추게 된다. 본성은 이와 같아서 스스로 본성을 만들어가거나 본성의 실현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또 다른 먹구름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이론이나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키워나가도록 돕는다면, 애니어그램은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자신의 행동패턴을 의식하게되면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멈추라고 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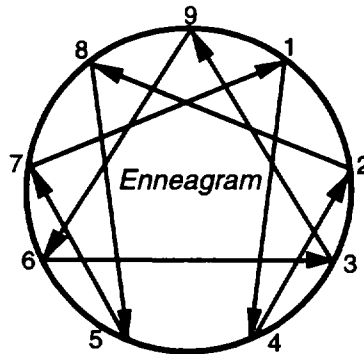
다.

애니어그램의 초점은 자기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나아가 타인이해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 직업상담, 가족상담, 교육상담, 경영 및 인사분야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II. 애니어그램의 제 개념들

1. 애니어그램의 의미

에니어란 그리스어로 9란 뜻이고, 그램은 무늬, 그림, 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에니어그램이란 '9가지 무늬, 그림'이라는 뜻이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유형을 아홉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각 유형에 따른 힘의 중심, 날개, 화살방향, 각 유형의 수준, 그리고 자신의 유형을 선택하게된 동기, 즉 집착 등의 개념들로 각 유형들을 이해하는 영성수련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전체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과 원둘레의 9개의 점, 그리고 그 9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시된다. 이 단순한 그림 속에 인간의 내면의 지도 모두가 그려져 있다.



2. 애니어그램의 역사

Don Richard Riso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애니어그램이 최초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500여년전인 고대 바빌론 혹은 중동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으

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인 종파인 수피파들에 의해 인간의식발달의 지도작성으로까지 활용하며, 구전으로 전해오는 수도자들의 영성수련법이라고 한다. 그러다 이 신비의 인간학이 서구 사회에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은 러시아의 게오로그 이바노비치 구르지에프(George Ivanovich Gurdjieff, 1870년 ~1949)가 수피 성직자인 나크쉬벤디스(Naqshbandis)라는 단체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의 스텐포드대학에서 돈 리차드 리소 교수를 중심으로한 심리학자들이 이를 체계화 하였다.

3. 세가지 힘의 중심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그 활력을 얻는 힘의 원천으로서 세 가지 주요 중심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성격유형의 뿌리가 되며,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힘의 중심은 첫째, 장중심(instinct center), 가슴중심(feeling center), 사고중심(thinking center)이다.

1) 장중심 - 본능과 습관의 차원에서 가능하며, 배중심이라고도 한다. 장중심은 의식이 개재하지 않는 자연스런 행동이 지배한다. 유형으로는 8번, 9번, 1번 유형이 장중심에 속하고, 공격과 억압의 문제들에 관련을 갖는다. 장중심은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 주요 관심이 나의 의지와 힘이며, 일중심적인 사람들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체격은 묵직하고 힘이 느껴진다.

장중심의 8번 유형은 강함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이며,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고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고하는 것은 쉽지만, 감정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싫고, 좋은 상대방 감정에는 관심이 적다. 감정중심 대신에 장중심을 사용함으로써 타인과 관계하려 한다.

9번 유형은 감정과 사고중심 대신에 본능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 장중심이 갖고 있는 생명력 자체로 억눌려 버려 생기가 없는 이미지를 풍긴다. 그리고 감정과 사고중심에 의하여 실현되는 새로운 인간관계나 넓은 시야에서의 고찰, 미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것에 대해 적극성이 결여되고 타성적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집착에 빠진다.

1번 유형은 감정중심과 서로 가까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서로 관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고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사고중심에 의한 전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

2) 가슴중심 - 자아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유형으로는 2번, 3번, 4번이 가슴중심에 속하고, 가슴중심의 사람들은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한 관심은 타인과의 대인관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이다.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며 그것에 의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도움으로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이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이며, 그 통제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는데 있다.

가슴중심의 2번 유형은 장중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정중심과 더불어 장중심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고중심을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정중심을 사고기능에 이용하려고 하지만 전체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추상적인 사고는 싫어한다. 3번 유형은 감정중심에서 본능이다. 사고의 기능까지 수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중심을 완전히 사용하여 깊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정을 죽이고 사는 것이 어렵다. 사고중심 대신에 감정중심을 사용함에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성공에만 지적 흥미를 집중한다. 또 장중심 대신에 감정중심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본능적인 반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면을 쓰거나 연기함으로써 가짜 감정을 표출한다.

4번 유형은 감정중심을 좋아하고 인접한 사고중심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중심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격심한 감정차원으로 살고 있으며, 항상 감동을 구하고 있다.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기보다도 과장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기가 어렵고, 감정의 과장 때문에 자신을 특별한 인간이라고 인식함에 사로잡혀 있다.

3) 머리중심 - 자신을 안전하게 해 준다고 믿는 일을 하려는 머리중심은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유형으로는 5번, 6번, 7번 유형이 머리중심에 속하고, 주요 관심은 하나 하나의 부분과 전체와의 관련성이다. 정보나 지식을 중심으로한 사고를 중시한다. 항상 전체를 둘러보며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는 상황파악과 분석을 먼저 시도한다.

머리중심의 5번 유형은 사고중심을 좋아하고 인접한 감정중심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감정보다 사고를 중시하며, 감정을 자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행동하기전에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관자, 관찰자의 입장이 된다.

6번 유형은 사고중심을 좋아하고 감정이나 본능의 기능에도 사고중심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사고의 기능 자체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가 없다.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의지한다. 애매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흑백을 확실히 가리려고 한다.

7번 유형은 사고중심을 좋아하고 인접하는 장중심도 활용할 수 있다. 사고중심을 감정중심 대신에

이용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낙관주의 성향이 강하다.

4. 날 개

애니어그램의 여러 하위개념중의 하나인 날개는 성격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유형을 보완하고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모순된 요소를 전체 성격에 부과한다. 날개는 전체 성격의 제 2의 측면이며, 자신의 기본성격을 보완하여 인생의 20대 후반에 한쪽 날개를 발달시키고, 주로 40대에 가서 나머지 한쪽 날개를 개발하여 비로서 양쪽 날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자신의 기본성격유형 좌우유형이 날개가 된다. 예를 들어 9번 유형이 자신의 유형이라면 9번의 좌우인 8번과 1번 유형이 자신의 날개가 되는 것이다. 날개는 우리의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제 유형보다 한쪽 날개의 성격을 내보이기도 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성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편파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서서히 펼치게 된다.

5. 화살방향

애니어그램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위에서 소개한 애니어그램의 상징도인 원안의 화살 방향들이다. 이 화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과, 삼각형 그리고 헥사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원은 전체, 우주, 완전을 뜻하고, 삼각형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헥사드는 성격의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살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제대로 된 방향에 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아홉가지 성격유형의 분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1) 화살표 방향 - 긴장점, 분열방향, 스트레스 방향

긴장과 위협적인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화살표 방향의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화살 방향은 그 성격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의식적으로, 강박적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보여 준다. 좁은 안목과 건강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9번 유형일 경우 6번, 3번의 순으로, 1번 유형의 경우는 1→4→2→8→5→7→1번 유형의 순이 된다.

2) 화살표 역방향 - 안정점, 통합방향, 성숙방향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편안한 상태이며, 화살표 반대방향의 긍정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통합과 일치, 성숙한 상태로, 건강한 방향이다. 자기성격의 짐을 놓기 시작할 때, 이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이 일어난다. 안목과 포용력이 넓어지고 개방적이 된다. 예를들어 9번 유형일 경우 3번, 6번 순으로, 1번 유형의 경우는 1→7→5→8→2→4→1번 유형의 순이 된다.

그러나 화살표 순방향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역방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순방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역방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화살표 역방향의 태도와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된다. 행동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또 하나의 거짓 자아를 덧 입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6. 집착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 환경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되고,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발버둥이 나의 유형이 되어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Self-image가 되는데 이 자기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면 자신도 괴롭게 되고, 타인도 괴롭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Self-image가 형성되어 타인이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Self-image를 지키려고 방어기재(근원적인 죄) 등의 애를 쓰는 것이 집착이 된다.

7. 회피

Self-image를 지키려고 피하려는 것이 회피이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어느 한 유형을 탐색하고, 그 유형을 선택하게 된 원인과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집착과 회피로 일관된 나의 기계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본성이 발현되도록 끊임없는 성찰이 중요하다.

8.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1 번 - 개혁가

- 1) 자아이미지 - 나는 옳다, 착하다, 올바르다
- 2) 긍정적 특성
 - 무슨일이나 완벽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끝을 맺는 사람들
 -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다.
 -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 3) 집착
 - 완벽함과 세부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과도한 비판
 - 인간관계보다 일처리가 더 중요하다.
 - 가만히 있어도 옆의 사람들은 비판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 4) 회피 - 분노 / 공격적 성향,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한다.
- 5) 방어기재 -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2 번 - 조력자

- 1) 자아 이미지 - 나는 도움이 된다. 무언가 남에게 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 2) 긍정적 특성
 - 따뜻한 양털 코트같은 사람들이다.
 - 무척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한다.
 - 관대하고 부드럽다.
- 3) 집착
 -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되려한다.
 - 헌신적인 이유가 사실은 대가를 바란다는 것이다.
 -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가 자신의 행복을 좌우한다.
 - 절대로 옆의 사람들이 자신을 벗어나 독립할 수 없게 만든다.
- 4) 회피 - 자신의 욕구
- 5) 방어기재 -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3 번 - 성취주의자

- 1) 자아 이미지 -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 2) 긍정적 특성

- 유능하고 사교적이다.
- 어디서건 주목 받는 사람이다.

3) 집착

- 성공은 곧 선이요, 진실이다.
- 허영(남에게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에 빠지기 쉽다.
-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

4) 회피 - 실패 / 일에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

-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

5) 방어기재 - 훌륭한 역할이나 직위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이다.

4 번 - 예술가

1) 자아 이미지 - 나는 특별하다. 독창적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2) 긍정적 특성

- 심미안적이며, 개성적, 독창적, 예외적이며 눈에 띄는 사람이다.
- 정서적인 강도가 높다.

3) 집착

- 자신의 고통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 받는다.
- 고유함, 특별함에 광적으로 유혹 받는다.
-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서 다른 이들에게 무심하거나 상처줄 수 있다.

4) 회피 - 모든 평범한 것을 회피한다.

5) 방어기재 - 인위적인 승화와 자기가 꾸민 세계안에 있을 때 더 편안하게 여긴다.

5 번 - 탐구자

1) 자아 이미지 - 나는 현명하다. 많이 안다. 통찰력이 있다.

2) 긍정적 특성

- 지적이며 사려깊고 수용적이다.
-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이다.
- 말수가 적은 훌륭한 청취자이다.

3) 집착

- 지식, 아는 것이 힘이며, 사생활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한다.
-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 판단만 하는 사람으로 옆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4) 회 피 - 공허감

5) 방어기재

-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 기억과 상상을 통해 지난간 일을 느낀다.
- 미성숙할수록 감정, 성생활, 육체적 접근을 회피한다.

6 번 - 충실한 사람

1) 자아 이미지 -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낸다.

2) 긍정적 특성

- 규범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 자기가 속한 집단에 안정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한다.

3) 집착

-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확실하다고 검증된 틀 안에서만 행동하거나 시킨대로만 하려고 한다.
- 정통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를 좋아한다.

4) 회 피 - 일탈, 불확실성, 특별함

5) 방어기재

- 투사,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타인이라고 책임전가를 한다.
-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이에게 전염시키고, 그 책임마저도 전가시킴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7 번 - 열정적인 사람

1) 자아 이미지 - 나는 행복하고 멋지다.

2) 긍정적 특성

- 쾌활, 명랑하며 낙천적이다.
-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재 다능한 사람

3) 집착

- 쾌락과 재미, 자기 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
- 부풀린 긍정주의, 낙천주의로 피상적인 삶을 산다.

- 진심에서 우러나는 관여를 피함으로써 남에게 무책임하고 상처 주는 성향이 있다.

4) 회 피

- 고통, 인생의 슬픔, 어려움, 갈등, 불쾌함을 악덕으로 여긴다.

-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과장된 공포가 있다.

-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와 이상적인 것에 열광한다.

5) 방어기재 - 합리화, 자신의 실수나 실패, 뼈아픈 체험을 직면하지 않고, 논리적, 객관적으로 합리화 한다.

8 번 - 지도자

1) 자아이미지 -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지배력에 집중하는 사람)

2) 긍정적 특성

- 리더십이 강하다.

- 진실과 정의에 투신하는 사람

-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도량이 넓어 남에게 안정감을 준다.

3) 집착

- 힘(자신의 의지=자신이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통제하고 지배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 권력과 승리를 추구한다.

- 누구와도 대결할 태세가 되어 있다.

- 자신만의 정의로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4) 회 피

- 허약함, 겁내는 것, 부드러움, 다정다감, 온순함, 동정심, 예속, 무능함, 허약함,

5) 방어기재

- 자신의 약점,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9 번 - 평화주의자

1) 자아이미지 - 나는 만족한다. 평화로운 사람이다.

2) 긍정적 특성

-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없으며, 평온(안정)을 유지한다.

- 편견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

3) 집착

- 안정과 평화
 - 어떤 상황에도 불만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흘러가는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 알게모르게 옆 사람의 속을 터지게 만들 수 있다.
- 4) 회 피
- 갈등
 -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다.
 - 자신을 하찮고 시시한 존재로 생각한다.
- 5) 방어기재
- '상관이 없다' '혼수상태' '최면' / 자신이 많은 긴장과 도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피

9. 각 유형별의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의 상태

1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공정하다 정직하다 정확하다 자제력이 있다 도덕적이다 현명하고 안정적이다 부지런하다 현실적이며 용의주도 이성적이며 객관적 다른 사람을 키워준다	강박적이다 독선적이다 걱정이 많다 자신과 남을 비판하고 깐깐하고 무자비하다 융통성 없고 무정하다 자신감이 없다 고집이 세고 거만하고 화를 잘 낸다 질투가 많다

2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친절하다 정이 많다 적응을 잘한다	이용당하거나 희생당했다고 생각 대놓고 말 못하고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상대방 세심히 배려 너그럽다 열정적이다 유쾌하고 부드럽다 다른 사람의 최선을 끌어내고 창조적이다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한다	돌려서 말한다. 분위기를 조장하며 사람을 조종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자신만이 누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질적이고 과시하려하고 잘난 체하고 비위를 맞추고

3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밝다, 유능하다 자신감 있다 긍정적이다 목표를 가지고 살며 효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동기부여를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근면하다	둘러대고 자기 도취적이고 허영심이 강하고 잘난척 한다 겉모습(이미지)에 얽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책임감이 없다 쉽게 약속하고 잊어 버리며 지나친 경쟁의식 일중독에 빠진다

4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마음이 따뜻하다 사람에 대한 연민 핵심을 용감히 밝히며 직관적이다 표현력 풍부 겁이 없고 대담 독창적이다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오만 까다롭고 심술궂고 움츠러들고 고집이 세고 자기기분에 좌우되고 마음을 사기 어렵고 자신에게 몰두하고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감수성 풍부 자기성찰 뛰어남 이해심이 많다 사람들 격려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살고 고민에 빠진다 너무 깊은 생각 옹고집과 변덕

5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분석적, 객관적이다 끈기 있고 자발적 현명하며 통찰력 잘 알아차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의견정리를 잘하고 유우머 있고 자신있고 정중하며 너그럽고 사려깊다 자제력	소극적이고 지적으로 오만하고 인색하고 옹고집을 부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쌀쌀맞다 비현실적이고 비판적이고 주변을 무시하고 부정적이고 괴짜가 된다

6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믿을 수 있고 분별력 있다 충실하고 진실하며 현신적이고 현실적 따뜻하고 온화하다 동정심이 많고 자기를 희생하며 재치 있고 영리하고 실질적, 책임감있다	경계심이 심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비겁해지고 남을 못살게 굴고 자기 패배적이고 비난적이고 자기방어적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편과 상대방을 가르고 뒤에서 조종한다. 사고의 경직성

7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재미있다 즐거운일을 선호 자발적이고 기지가 넘친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산적, 혁신적이다 열정적이고 영감이 넘친다 재빠르고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 있다 신속하고 매력적이다	독점적 자기도취적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폭이 좁아지고 광적이고 뒤죽박죽이고 주의가 산만하고 상대방에 대해 무심 안정감 상실

8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솔직하고 권위가 있고 자신이 책임지고 충실하고 힘차고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보호해 주고 믿음직하고 든든하며 자신감 있다	반항적이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지배하려 하고 가혹하며 위세를 부리고 회의적이고 의심하며 무뚝뚝하고 둔감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적 오만하다 억지를 부린다 자기중심적

9번 유형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온순하고 불임성 있다	초점이 없고 게으르며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넓다	잘 잊어버리고
평화롭고	무관심하며
수용적이고	무책임
사람들과 편하게	고집이 세고
어울리고	현실을 무시하며
개방적이고	냉담하고
배포가 크며	강박관념
편견이 없다	자신이 없고
타인 심정이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공격한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대부분은 자기자신 밖의 외부 지식들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탐색을 하며, 건강한 성격과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교육내용은 정규과정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온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지함과 깊은 사고력,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색 등은 무척 어려워하고 꺼려하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 경향에서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게 자신의 내면의 가치, 감정의 뿌리, 본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케하는 좋은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애니어그램은 일반적으로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지만, 소개되는 많은 개념들을 자신과 연결하여 심도있게 성찰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상담의 형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듯 하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듯이 지식은 또다른 먹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본성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되는 지식에서 걸도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좀더 내면화 시켜나가기 위해 개인적인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 집단상담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애니어그램은 교육되는 기관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대인관계에, 산업체의 산업교육으로, 영성수련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애니어그램이라도 대학생들에 맞는 접근으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훈련 쪽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성수련으로 또는 집단상담으로 시도된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애니어그램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일부 대학에서 조금씩 실시되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보완한다면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태경 역(1997), 스즈키 히데코의 9가지 성격, 대청출판사.
우재현(1996), 잠재력개발을 위한 애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 정암서원.
우재현(2000), 애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한국애니어그램 협회.
윤운성(2000), 애니어그램 성격유형론 고찰,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
윤운성, 이은하(2001), 애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선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주혜명 역(2000), 애니어그램의 지혜, 한문화.
한국애니어그램연구소(1999), 애니어그램, 내적여정, 한국애니어그램연구소.

<Abstract>

An Enneagram Utilization as a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Park, Ki-Won

Until now most of our education has not included regular curriculum. While it has been taught and learned external knowledge out of self and questioned themselves have healthy personality and self concept. Therefore each of university institution for student life has been doing his best and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satisfy this point. But as a whole nowadays university students were too often disposed to interest in an instant and momentary pleasur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difficulty in seriousness, deep thinking, questing of internal self and intend to avoid it.

This is like a psychological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Also Enneagram was understood objective self, it was expected to utilize helpful measurement to search internal value, a root of emotions, the original nature. Generally Enneagram was going on the type of workshop but group counseling approach were much better because introduced many concepts that can connect with self for chance of insight profoundly.

Enneagram shows that much knowledge make difficult to get the original nature as it makes another black clouds. And I think group counseling is very useful as middle process as not to understand only knowledge by reason, to internalize for process of personal insight. By education center of Enneagram, psychological, personal relations, industrial education of industrial association, spiritual training, they approach variously.

Accordingly the same of kind Eneagram which it corresponds to university students is, I think if it tried such like that it is effective, the subject of majority fits to personal relation training, the subject of minority fit to spiritual training or group counseling. As yet Enneagram does not given wider publicity, some university was carried out it and revealed the effect of students' self-identity.

If it developed and revised with suitable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e expect it serviceable measurement.